# 아시아 도서간 협력 : 관광과 문화교류

참가자 등록(KAL 호텔 2층 대연회장)
전체진행/유철인(제주대 교수)

## 개회식

사회/김진호(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간사)

- 개회사:김영호(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환영사:신구범(제주도지사)
- 축 사:고장권(제주대학교 총장)

## 기조연설 : 김학준(인천대학교 총장)

## 휴식

### 발표 ■관광정책과 도서간 협력

- 사회/고성준(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발표자
  발리의 관광발전과 섬관광 정책포럼에 거는 기대
  /이다바거스 라타(인도네시아 우다야나 대학교 교수)
  아시아 국가의 해양 및 도서관광에 있어 전통문화
  /리아오 쑨(중국 해남행정학원 교수)
  아시아에서 도서간 협력과 오끼니와 : 관광과 문화교류
  /테츠 고하마(일본 메이오 대학교 교수)
  제주도 관광정책의 방향과 도서간 협력방안
  /허향진(제주대학교 교수)

## 오찬(제주 KAL 호텔)

### 종합토론

- 사회/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토론자
  수카르디카(인도네시아 우다야나 대학교 총장)
  장 시야오(중국 해남성 관광국 국제시장개발처 차장)
  히가 미키오(일본 오끼나와 부세나 리조트사 사장)
  김한욱(제주도 관광문화국 국장)
  한범수(한국 관광연구원 조사전산실장)
  장성수(제주대학교 교수)
  송재호(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Jeffrey Brown(Holiday Inn Crowne Plaza Hotel & Casino 총지배인)

# 아시아 도서간 협력 : 관광과 문화교류

## - 제2부 종합토론 요지 -

사회자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 수카르 디카(Dr. K. Sukardika Dsmk; 인도네시아 우다야나 대학교 총장)
장 시야오(Mr. Zhang Shiyao; 중국 해남성 관광국 국제시장개발처 차장)
히가 미키오(Dr. Mikio Higa; 일본 오끼니와 부세나 리조트사 사장)
한범수(한국 관광연구원 조사전산실장)
장성수(제주대학교 교수)
송재호(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Jeffery Brown(Holiday Inn Crowne Plaza Hotel & Casino 총지배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는 종합토론 시간이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한다. (위 토론자 순서대로 소개함) 토론자 당 약 10여분에 걸쳐 자유토론을 부탁한다. 그러면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카르 디카 우다나야 대학 총장님께 토론을 부탁한다.(이하 중간 사회자의 역할은 생략하고 각 토론자의 토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수카르 디카 : 우선 우다나야 대학을 간략히 소개한다. 대학은 인력자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우다나야 대학은 주요 관광지가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누사 두와라는 곳은 제주의 중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곳이다. 싸누르는 섬의 오른쪽에 있어 일출을 보는 곳으로 유명하며 쿤다 해변 서쪽은 일몰로 유명하다. 우다나야 대학은 이처럼 관광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캠퍼스는 2개인데 하나는 시내 중심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캠퍼스이고, 또다른 새로운 캠퍼스는 학교본부가 있는 캠퍼스로, 특히 본부건물은 발리식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현대식 건물을 짓더라도 이처럼 전통적 건물양식으로 지음으로써 전통문화 양식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ITOP에서 해나갈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정신으로 협동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친목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관광에 대한 4개 섬의 공동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섬의 사무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셋째는 4개 지역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 시야오 : 제1회 섬관광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고 있다. 예정했던 각종 사안들이 예정대로 완성되고 있고, 이처럼 좋은 기회에 저를 초정해 주셔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

다. 역사는 이제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세기적 전환기에서 이번 4개 섬이 모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본다. 저는 4가지 점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4개 섬 간의 항공노선의 개설에 대한 것이다. 4개섬 간에 정기 혹은 비정기로라도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1995년 12월에 서울과 해남성 삼화 사이에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일주일에 2차례Tlr 운항되고 있다. 근 1년 동안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동안 한국의 수많은 여행객들이 해남성을 방문했고 해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 동경과 대만과 상마사이에도 항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나머지 지역과는 항로개설이 안됐다. 나머지 이들 섬들 간에도 빨리 항로개설, 혹은 선박로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둘째는, 4개 섬들이 합쳐 관광객들에게 공동으로 홍보하자. 4개 섬 지역간에는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4개 섬이 함께 모여 관광자원, 관광객 교류 등을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 토론하자. 이러한 것은 분명 4개 섬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중점적으로 관광교육과 관광영재를 양성하는데 힘쓰자. 4개 지역 관광교육 교수를 서로 초청해서 강좌개설을 할 수 있다. 해남성에서 터득한 관광관련 기술, 경험을 다른 섬 지역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를 통해 해남성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넷째는, 4개 섬들이 항상 자리를 함께 해 관광사업 중점개발분야, 관광시장 촉진, 기업관리, 관광영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문제 등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갖자.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 어제 어떤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해남도에 비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남성은 관광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해남성의 경우 해남성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게 한다. 외교관계, 무역관계가 있는 나라의 지역관광객들은 해남성에 내려서 비자를 받들 수가 있다. 수속 시간도 5분 정도밖에 안걸린다. 그리고 비자는 계속 연장 가능하나 단 해남성에서 2주 이상은 넘길 수 없다. 중국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에도 해남성에 받은 비자로 여행할 수 있으며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비자 발급제도는 오직 해남성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해남성은 경제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해남성을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

히가 미키오 : 김영호 원장님께서 오늘 심포지움이 관광개발에 대한 이론과 실질적인 측면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을 말하겠다. 첫 번째는 섬에 대한 피해의식 즉,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는 오늘의 ITOP포럼이 중요하다. 해양시대를 연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두 번째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각 섬마다의 자립, 정치적인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립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첫째는 도덕적 측면에서 환경보전을 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의 단위에서 지역단위, 국가단위, 국제단위 중, 특히 국제단위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한 바 있는 직항로 개설이라든지 무비자 입국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범수 : 오전 발표에서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올 것은 다나왔다고

본다. 종합토론이란 그 성격상 발표내용을 다시 재확인하고 종합정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토론한 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제안과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발리 우다나야 대학의 라타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훌륭한 협력관계는 신중한 상호이해와 어려울때나 좋을 때나 가리지 않은 우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광이란 일상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밑바탕에는 신뢰와 우애가 기초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 해남성의 행정학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의 부정적 영향으로 기생, 도박, 공덕심의 희미해 지는 문제 등도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말이 나온김에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두기로 하면, 현재 유럽의 경우 39개국 중에 34개국이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고 아시아는 39개국 중 21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른데, 저 생각으로는 관광상품으로 얼마든지 소화될 수 있고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각 국가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와 사회적 관습에 맞게 제한하고 절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88년에 343,843명, 96년에 562,744명의 외국관광객이 카지노를 찾았다. 그리하여 88년에 442억, 96년에 2125억의 수익금을 벌여들여 년간 16.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들에게만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멀지 않아 강원도에 내국인들에게도 허용되는 카지노가 들어설 전망이다. 그만큼 우리사회도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다른 각 국들도 카지노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다. 다음으로 제가 아시아지역 컨벤션 센터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메시지역은 인구 60만 지역경제를 메세나 컨벤션을 통해 좌지우지할 정도인데, 아시아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각 국간 컨벤션을 테마관광으로의 컨벤션 상품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섬들의 동질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섬들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상품을 제시함으로써 진부한 느낌을 가져올 우려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장성수 : 섬관광정책 포럼은 개방화와 세계화의 조류에 부응하는 것이다. 4개 도서가 연대협력하는데에도 현존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호의적인 협력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한계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뚫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발표 및 토론자들이 고통된 의견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라타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상호정보교환이라든지 서로의 가능성에 대한 배교연구 탐색 등이 뒷받침되는 데서 실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 도서들이 현존사회에서 왜 도서 연대에 매달리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경제블럭 시대에서 각 도서들이 부존자원, 산업구조, 발전전략을 볼 때 본토와 어울릴 수 없고 변두리 역할만 하느니 새로운 계기를 찾아 동북아의 비약적 움직임을 갖자는데 오늘 포럼의 숨은 뜻이 있다고 본다. 오늘 대부분의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점들에 대해 3가지 정도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포럼의 유지 발전 계승을 위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나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자치성장들간에 이루어지고 각 자치성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른 자치성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를가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포럼을 영구히 지탱해나갈 재정적 뒷받침과 도민 성원을 담을 수 있는 도민 규약 등은 안돼 있는 상태이다. 포럼을 영

구적으로 발전시켜 가려면 이처럼 가장 큰 기금확충을 통해 투자에 대한 아까움을 남겨둬야 계속적으로 포럼이 계승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로, ITOP포럼과 같은 국제협약에 있어 4개 도서가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에 필수적인 쌍방간 실무협상을 통한 이해 조정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린 중간에 각기 섬마다 별도의 의지를 갖고 단 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섬포럼이 알차다. 예컨대 우리가 반성해 볼 일은 지난 87, 89, 92년 까지 제주도와 하와이간 도서협력 중진 및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있는데 1차 하와이, 2차 제주도, 3차 하와이에 회의가 열렸을 뿐 쌍방간 구체적인 자매결연 추진실적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가 다자간 협상을 테이블로 나갈 수 있는 자치영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쌍무적인 실무능력을 가졌는지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기금확충 문제나 쌍방간 심층적인 연구에 앞서 천리길도 한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쉬운일부터 한걸음씩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먼저 호의를 보이는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서야 한다. 상대 전문가를 한 두명이라도 초청하고 공식안내 책자에도 상대방을 우리의 일처럼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금만 일에서 시작되어야 오늘 포럼을 만드는 정신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재호 : 섬관광정책 포럼의 논리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동아시아 각 섬들을 둘러보았다. 각 섬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두가 오늘의 포럼과 비슷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일본 오끼나와의 경우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상, 국제도시 형성계획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이래 꾸준히 제기되어온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들 수 있는데 비관세, 직항로, 노비자 등은 사실 관광 자유지역으로 가기 위한 전초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발리의 경우는 인터네션널 컨벤션 플랜, 이번 포럼의 구성국은 아니지만 타이완은 중국을 컨티넨탈 차이나라 하는 반면 자신들은 오우션차이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의 가능성을 미리 발견한, 즉 1세기전부터 발견한 싱가폴, 홍콩, 대만 등은 짐작부터 경제적 부를 향유하지 않았던가 싶다. 단지 이들 나라들이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혼자하는 것이 벅차다는데 있다. 세계화시대다 해양화시대다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잠시 설명하기로 한다. 세계화란 사람 상품 자본 등이 이동의 자유로운 현상이고 관광은 사람의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관광은 미래의 핵심적인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96년 전세계 관광수입은 3조 4천억불로서 이는 세계 군사비 총액의 4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체 근로자 9명중 1사람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01년 유동 관광객수는 1억 3천 5백만명, 2010년에 2억 2천 9백만명으로 예상되고 잇다. 여기서 제주가 세계적 관광을 지향한다면 1억 3천 5백만명중 1%만 유치해도 135만명이다. 96년 현재 제주의 국제관광객수는 20만 9천명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1억 3500만명의 유동관광객을 제주도 혼자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고통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유사한 섬들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여기에 섬관광정책포럼의 의의가 담겨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제주선언을 비롯한 지사성장회의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이미 다 제시하였다. 단지 지적해 두고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라타 교수임이나 허향진 교수가 적시한 것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레벨로 내려와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간 공동연구,

공동연구소 설립 등이 시급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다음 오끼나와 회의에서 지사성장회의의 의제로 올려져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라타교수의 지적한 바의 문화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 문화관광을 하다보면 전통문화와 정체성의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발리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화관광을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해남성의 경우도 다양한 종족이 모여 다양한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한 문화관광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을 살려나감으로서 서로에게 이익과 복지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다.

Jeffrey Brown : 앞서 토론자들이 많은 제안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 짧게 중요한 부문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이론과 실제계획을 세움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마아켓팅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 고객이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즉 고객의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예로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고유한 문화와 이미지가 있다. 발리는 그러한 고유한 문화와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잘 인지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제주, 일본의 오끼나와, 중국에서의 해남성에도 큰 나라 속의 작은 섬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인식시켜야 한다. 70년대의 발리는 돈 안드리고 가서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로 80년대 이후의 발리는 달라졌다. 이처럼 자신의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마아켓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하는 데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금을 마련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자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가 나서는 적극적인 마아케팅이다. 민간단체는 직접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전략과 아울러 정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즉 공과 사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관은 필요한 협약과 규약, 구체적인 일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